

## “미주 한인 2세, 세계선교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대”



2020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에서 기도하는 청년들 ©Soon Movement, KCCCUSA)

순 무브먼트 (Soon Movement, KCCCUSA)는 지난 1월 1일부터 4일까지 남가주 가든 그로브에 위치한 Hyatt Regency 호텔에서 2020 Higher Calling Conference를 대학생들과 12학년을 대상으로 가졌다. 특히 올해는 가치관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알고 또한 미래를 거룩하게 준비하도록 “Worthy”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다.

북가주와 남가주의 여러 대학교에서 약 350여 명이 참가를 하였고 감사로는 데릴 스미스(Cru One-

ness & Diversity Director), 제프 현 (Jeff Hyeon 사랑의 교회 EM), 김대훈 목사(New Beginnings of Crosspoint Church), 오윤태 목사(SOON Movement 대표) 외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강의를 전했고, 특별히 이 집회의 목표인 선교에 대한 도전과 헌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날 학생들은 인간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했으며 마지막 날은 인생의 소명을 확인하고 부르심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용들로 진행됐다.

오윤태 목사(Soon Movement대표)는 “우리 2세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세대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계시다”며 “이들을 잘 지도하고 훈련할 때, 세계 선교에 소중한 일꾼들로 쓰임 받을 것”이라며 2세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 대선 앞둔 트럼프 美 대통령, 복음주의자들과 연대

2020년 새해,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주의자들과의 연합체인 ‘Evan-gelical for Trump’에 참여해 복음주의자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큰 히스패닉 계열의 복음주의 교회인 마이애미 엘 라이 지저스교회(EI Ray Jesus Church)에서 가진 지지자 모임에서 “나의 재선을 위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는 2016년 당시

보다 더 놀랐다”고 강조했다.

제이슨 돕슨, 시지 그래함 린치, 잭 그래함, 알베다 킹, 폴라 화이트 목사 등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크리스챤티투데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사실을 게재한 지 하루 만에 추진됐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많은 이들이

‘2020년에는 우리가 이 숫자도 넘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적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속박되어 있는 종교 자체를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낙태, 종교자유, 판사 임명, 동성애 이슈, 사법체제 개혁 등에 있어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社 告

기독일보 창간 16주년, 지령 700호를 맞아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민 사회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이민 교회 환경 또한 크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일보는 협지를 개척해 가는 이민자들의 심정으로, 또 때로는 더욱 척박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민 목회자들의 심정으로 이민교회 곳곳을 다니며 현장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눈과 귀가 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운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었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힘든 기독교언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기독일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독자 여러분들, 특히 이민교회 목회자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일보의 사역을 위해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민교회는 현재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2세들이 어느덧 성장해 성인이 되었고, 1세대와 2세대간의 신앙계승이라는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반성경적 가치들에 대해서도 이민교회는 계속해서 단결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기독일보는 이민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알리고 더욱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기독교언론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독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선별해 전달하는 역할 또한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서 기독일보가 기독교언론으로서 복음전파와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일에 더욱 힘 쓸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일 마이애미의 한 교회에서 열린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복음주의자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HAPPY NEW YEAR

**근하신년**

올림픽치과를 찾아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가정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최상의 진료와 마음이 담긴 서비스로 더 큰 고객만족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아버지 밥상 천막 교회**

주일에배 오전 11:00

홀리스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헬터 사역을 합니다.  
- 도네이션 받습니다.(옷 신발, 이불, 치약, 칫솔, 의약품...)  
-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날마다 300명분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Open bank : father's table mission  
라우팅 넘버 : 122043958  
어카운 넘버 : 06209456

센터: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오피스: 1547 S. Gramercy place., LA, CA 90019  
**Tel. (213) 364-7289, (213) 605-1983**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양성

**월드미션대학교**

2020 봄학기

**신입생 모집**

유학생 특별 장학금  
대학과정 정부 학자금 혜택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MEDICAL EDUCATION

기독일보 창간 700호를 축하합니다

**캠퍼스 프로그램**

- **준학사과정** •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학사과정** •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간호학과 (RN to BSN)
- **석사과정** •  
목회학과 / 신학과(글로벌 리더십) / 상담심리학과 / 음악학과 / 예배학과
- **박사과정** •  
목회학과 / 교회음악학과
- **수료과정** •  
WMU 상담교실 / 바이블 아카데미

**온라인 프로그램**

- **준학사과정** •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학사과정** •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간호학과 (RN to BSN)
- **석사과정** •  
목회학과 / 신학과(글로벌 리더십) / 상담심리학과 / 예배학과
- **수료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 / 유아교육 원장 및 교사 / 비영리단체 (NGO/NPO) 사역

**| ABHE, ATS 정회원 |**

미연방정부 학비 지원 • 미국 정규대학 학사/석사 학위 • 한국어 강의  
미 군복 장교 지원 • 미국 주류 기독교대학 (원) 편/입학 • 온라인 수업, 모바일 사용

문의 admissions@wmu.edu | 213.388.1000 | www.wmu.edu



# 제50대 남가주 교협 이·취임식 “교회 연합기관 사명 감당하겠다”

## “교협 사유화, 불법, 탈법 회개하고 회복의 전기 맞아야”



제50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이·취임식 기념촬영



설교에서 남가주 교협의 회개를 강조하는 김재울 목사



남가주교협 직전회장 한기형 목사가 정완기 신임회장에게 협회기를 이양하고 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정완기 목사 이하 남가주 교협)는 지난 5일, 한미 장로교회(담임 김영모 목사)에서 ‘제50대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을 거행하고 50대 남가주 교협의 출발을 선포했다.

정완기 목사는 취임사에서 “남가주 교협의 위상 재고의 해로 삼고자 한다”며 “1천400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연합기관의 역할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완기 목사는 남가주 교협 50주년 역사를 조명하며 5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임사를 전한 직전회장 한기형 목사는 “지난 회기를 온전히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5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갖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반세기를 지나고 회년을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남가주 교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부 순서로 진행된 예배는 남가주 교협 수석부회장 조병국 목사의 사회로 류당열 목사가 기도하고 이사 다이앤 신 목사가 성경봉독했다. 에버그린 합창단의 특송에 이어 김재울 목사가 설교했다. 조준석 목사의 헌금송에 이어 김용준 목사가 헌금기도, 총무 나승렬 목사의 광고에 이어 이태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회년의 나팔을 불라”(레 25:8-13)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재울 목사는 남가주 교협이 회개를

통해 회복의 전기를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울 목사는 “과거 남가주 교협을 사유화하고 물질에 사로잡혀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비도덕적 가치를 은혜로 포장하면서 분열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며 “교만과 우상화를 내려놓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는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회복해 회년의 나팔을 크게 울리는 교협이 되자”고 전했다.

이어진 축사와 권면 시간에는 에드워드 구 평통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해외총회 총회장 정신구 목사가 축사를, 남가주 교협 상임이사회 이사장 박준형 목사와 남가주 목사회 직전회장 김관진 목사가 권면을 전했다.

에드워드 구 평통 회장 “남가주 교협의 역사는 한인 이민의 역사와 같다. 어려운 일들마다 교회들이 나서 화합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며 “50년 전 남가주 교협 창립의 초심을 회복하고 교계 화합과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구 목사는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며 “남가주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을 화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박준형 목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면서 “한 해 동안 너그러운 마음과 친절함, 온화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협을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관진 목사는 “남가주 교협은 사

회단체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가기 위해 연합한 기관”이라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50대 교협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3부 순서로 진행된 신년 축복기도회 및 신년 하례식에서는 미주 총신대학 이영대 교수와 박기덕 목사의 인도로 △한국과 미국의 번영,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남가주 1천400개 교회 부흥과 남가주 교협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합심 기도한 후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 회장 김인숙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http://www.chman.org) **714.738.1234**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http://www.saseducation.weebly.com)

## 실무 12년의 노하우

#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1-20** 자격신청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T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summitus37@gmail.com](mailto:summitus37@gmail.com)



# 기독일보 창간 700호를 축하합니다



회장 정완기 목사 수석부회장 조병국 목사 총무 나승렬 목사

총무 : 213-884-8156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 “기도, 봉사, 사랑으로 섬기는 교협될 것”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이·취임 감사예배



취임사를 전하는 박상목 OC교협 신임회장



제 29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이·취임식 기념촬영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상목 목사 이하 OC교협)는 지난 6일 미주 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신·구 임원을 비롯해 교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식을 갖고 새 회기에 들어갔다.

박상목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 OC 교협이 해야 할 사역으로 지난 몇 년 동안의 미진한 부분을 돌아보며 급년에는 OC 산하의 여러 단체들과 진솔한 소통으로 봉사하며, 한인들과는 협력함으로 사랑을 나누며, 목회자들과는 기도로 교제하며 이민사회를 섬기는 중요한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사를 전한 직전회장 이서 목

사는 “교회협의회 목적은 영혼구원으로 우리 인생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란 이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협이 되길 바란다.”

신인 이사장 이호우牧사는 “부족하지만 연합사역이란 누군가는 섬겨야 하는 사역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부족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취임 예배는 조형수 부회장의 사회로 OC 목사회 회장 김근수 목사가 기도했으며 OC 기독교평신도 연합회장 민 김 집사가 성경봉독 후 전 KWMC 공동회장 고인호 목사가 “하나님이 이민교회에 두신 뜻”(행 16:6-10)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는 정영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고인호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중심인 미국 땅에 한인들 200만 명을 심으시고 4천여 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로마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었듯이 미국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 전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하자”고 전했다.

이날 OC 교협은 이임 회장 이서 목사, 이임 이사장 민승기 목사, 이임 후원이사 김영수 장로, 정정건 장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OC 한인회 회장 김종대 장로, 영 김 전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증경회장 한기홍 목사, 신원규 목사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한기홍 목사는 “올해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40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로, 미국 내 한인 교회가 제2의 청교도 신앙으로 일어나서 타락하고 있는 미국에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이 임하는데 쓰임 받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며 “OC 교협이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전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할러데이 트리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바로잡고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임을 분명하게 하는 등 미국 내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며 “연방 의회에 진출해 미국이 동성애와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는데 힘쓰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OC교협은 2020년 임원단으로 총무 추석근 목사, 협동 총무 김병호 목사, 서기 김용철 목사, 부서기 주성철 목사, 회계 이명희 목사, 부회계 최정자 목사, 감사 김영찬 목사, 이영찬 목사를 선출했다.

또 사업계획으로 2월 OC지역 단체장 초청 기도회를 비롯해 3월 3.1절 기념행사, 성경 읽기 세미나, 4월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5월 사모 블레싱 나잇, 6월 6.25 기념식, 7월 OC 지역 선교대회, 8월 광복절 기념식, 10월 OC 지역 영적 대각성 집회, 12월 교회 연합 성탄예배 등을 발표했다.

김동욱 기자

## 정필도 목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인수 많은 교회 아냐..”

동부사랑의교회 신년성회 개최

동부사랑의교회(담임 우영화 목사)가 지난 2일부터 나흘간 개최한 신년 특별집회 강사로 나선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목사는 “올 한 해 기도 응답을 위해 먼저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당부했다.

정필도 목사는 “우리의 기도는 나의 생각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순종의 기도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기도의 응답을 얻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목사는 수영로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시작한 1시간의 새벽기도를 예로 들며 “일본을 시작해 지구 전체를 돌면서 기도하면 1시간도 부

족했다”고 소회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내 소원이 됐다”며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돌며 일하게 하신다”고 말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거룩 향해 말씀·기도에 목숨을 걸라

정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는 교인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변화의 증거가 있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 말씀과 성령을 통해 회개하면서 변화를 받아 예수님



동부사랑의교회 우영화 목사(좌)와 정필도 목사(우)

을 온전히 닮아가려고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하고, 거룩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며 “하

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기독일보 창간 700호를 축하합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

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39

## “내 영이 부어지면 늙은 이는 꿈을 꾸리라” (요엘2:28)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난 주중에 시카고 지역에서 사신다는 한 은퇴 장로님의 전화를 받았다. 올해 정년으로 4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였다 한다. 부인은 간호사로 약 3년 전 먼저 은퇴를 하였고 슬하에 세 자녀가 모두 결혼하여 손주가 5명이라 했다. 우연히 시카고 근교 휘트 칼리지를 방문하여 교정을 거닐다가 어느 건물 복도에 붙여져 있던 선교사들의 이름을 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이 생각났다고 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직장 갖고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젊은 날 가졌었던 꿈이 선교사였다고 했다. 그러다가 학교 관계자와 말하는 중에 매년 필자가 섬기는 선교단체가 이 교정에서 “선교캠프”를 열어 수천 명이 모이는 선교집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한다. 그러다가 2020년 4월에 선교사명을 가진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터키의 소아시아 탐사 선교여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담당자인 필자의 연락처를 얻어 전화를 했다.

그분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였다. 필자는 직접 선교지에서 보았던 은퇴자들의 선교사역을 소개했다. 자기 전공을 살려 선교지에서 눈부시게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현지인 자녀들에게 영어나 한 국어를 가르치는 분들, 한의사, 음악가, 양농가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필자의 교회에서 은퇴한 선교사 부부가 파송받아 가서 현지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주는 베이비시터 사역 등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은퇴 사역자들을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선교사역을 돕는 준비되어 있는 선교단체들이 있다. 그런 전문인 선교단체와 연결하여 훈련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설명해 드렸다.

그리고 필자가 본 은퇴 선교사들의 모습은 현장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는데 육체적 심리적 나이가 10년 이상씩 젊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 같은 나이의 이곳에서의 연장자들과 선교현장에 계신 사역자들은 삶의 방



이 상 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식도 큰 차이가 있지만 삶의 질이 다르다. 그리고 외향적인 모습도 선교지 사역자들이 한결 젊다. 현장 사역자들에게 근심이 없다. 감정 기록이 적다. 무엇보다도 타인을 사랑하며 사는 이타적 인생이 된다.

영어의 ‘retire’란 말 그대로 새로운 타이어를 끼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이 세상에서의 은퇴시기라는 것이다. 현대 선교는 현지에 장기 체류하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전통적 장기 선교사들이 있어야 할 사역지가 더 많지만 이슬람권이나 선교사의 핍박이 심한 나라들에는 중단기 선교 전략도 매우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은퇴한 연장자 사역자들에게 장기 체류의 선교 방법보다는 중단기로 매년 꾸준히 선교지를 방문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역하는 전략적인 선교 방법도 좋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 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선교에 임하는 우리 선교 사역자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필자는 믿는다.

이 땅에서 자기 분야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은퇴를 맞이하신 분들에게 도전장을 드린다. 은퇴 후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더 값지고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고민과 기도를 이 성탄의 계절에 드리기를 바란다.

필자와 오랜 전화 통화를 한 끝에 은퇴장로님 내외 분은 평생 처음으로 이슬람권 선교의 첫걸음인 소아시아 탐사 선교여행에 참여를 결정했다. 그 두 노 부부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선교(misio dei)”에 필자는 가슴이 뛰는다. 한 인생이 삶을 걸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행복 만들기 (8) 몰입

## “몰입하라!”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도 몸이 약해서 수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림픽 8관왕 출신의 수영선수 펠프스(미국)도 장애 때문에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즉 집중이 불가능한 ADHD 증후군 환자였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가 ADHD 증후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펠프스의 부모는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분야를 찾다가 수영을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부모들이 펠프스에게 수영을 가르쳤더니 펠프스는 몰입하게 됩니다. 펠프스는 깨어있는 시간이면 잠시도 쉬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을 연습하여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펠프스의 성공은 몰입의 비밀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캐나다의 마크 피셔라고 하는 분이 “골퍼와 백만장자”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성공의 비결을 말합니다.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은 확실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열정(Enthusiasm)입니다. 어떤 분야건 성공한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정열적으로 삽니다. 아주 열심히 삽니다.

두 번째는 집중(Concentration)입니다. 박세리 선수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중력은 대단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애인을 만나고 싶고 젊음을 즐기고 싶은 마음의 유혹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모두 물리치고 오로지 훈련과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경기 중에 박세리가 보인 무서운 집중력은 당시 골프계의 화제였습니다.

‘몰입의 즐거움’ 저자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

들의 특징이 몰입(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푹 빠지는 상태)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몰입은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로 무언가에 흠뻑 빠져 심취한 무아지경의 상태를 뜻합니다. 주위의 모든 방해물을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어느 한 곳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몰입의 상태가 일의 능률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몰입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현대 행복학의 업적입니다.

칙센트미하이는 미술가, 음악가, 스포츠 선수들에 관해 연구하면서, 이들이 작업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집중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몰입 연구에 집중하면서 어떤 일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몰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몰입하면 일의 능률이 향상됩니다. 몰입하면 성공합니다. 몰입하면 행복합니다.

몰입하지 않고 맛보는 행복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몰입으로 얻는 행복은 스스로 만든 행복이므로 더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안겨 줍니다. 또한 몰입 상태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강렬한 주의 집중이 일어나 몰입하는 대상에 대해 단시간에 빠르게 흡수할 수 있

게 됩니다. 몰입 상태의 경험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도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몰입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위대한 천재들의 편집적 몰입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디슨, 아인슈타인, 고흐 등이 몰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천재들은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에 적응이 힘들 정도로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들입니다. 반면, 자신의 관심사에 온전히 몰입합니다. 이 경우 몰입이 천재성입니다.

둘째, 위기를 극복한 영웅들의 몰입입니다. 몰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우입니다. 알렉산더, 카이사르, 나폴레옹, 링컨, 세종대왕, 충무공 등이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나 역사의 변곡점에서 그들은 무서운 집념으로 몰입하여 위기를 극복하여 성공한 영웅들입니다. 이들의 위기 몰입은 위기 극복은 물론 그들에게 큰 성공을 선사하였습니다.

셋째, 훈련으로 자신의 분야에 몰입입니다. 후천적인 몰입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 중 트리오를 보면 경화, 명화, 명훈 모두 음악을 좋아하는 어머니 밑에서 악기를 배웠지만 유독 자신들이 몰입하는 악기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모두 피아노를 배웠지만 정경화는 바이올린을 잡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했으며 정명화는 피아노, 바이올린 모두 시큰둥하게 여기더니 첼로를 잡자 몰입하기 시작하더라고 합니다. 정명훈은 피아노에 몰입했습니다.

결실이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떤 형태로건 몰입해야 합니다. 단기간의 몰입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장기간의 몰입으로 작품을 남깁니다. 몰입은 성공과 행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몰입하면 행복합니다. 몰입으로 건강한 행복을 구가하시길 바랍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파크, 싸이프레스, 라팔마, 엘바인 OC/LA전지역

알려지지 않았던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2년을 믿으십시오

교육의 도시 '싸이프레스'로 오세요~

|   |  |   |
|---|--|---|
| <b>타운홈 \$51만</b><br>방3 화2<br>건평 약 1150SF<br>로스알라미토스학군<br>착한가격 | <b>럭셔리 하우스 \$95만</b><br>골든그로브라 불리는 퍼시픽리치에 최고학군 처음부터 끝까지 업그레이드된 집, 널찍한 실내구조에 건평 약 2600SF 꼭 와서 경해야할 집! | <b>고급 하우스 \$93만</b><br>싸이프레스하이 인근 도보거리 10분 손하나 댄 데 없이 완전 리모델링된 집 방6 화3 건평 약 2700 SF 시월시원한 실내구조! |
| <b>하우스 \$75만</b><br>로스알라미토스학군 방3 화2 건평 약 1150SF 착한가격          | <b>새집! 새집!! \$89만</b><br>최고 인기있는 최고급 시니어커뮤니티. 55+ 로스알라미토스 방2 화2.5 풀로리파크에 위치한 최고급 럭셔리 하우스 꼭와보세여~~     | <b>타운홈 \$55만</b><br>방4 화2.5 건평 약 1800 SF 학군 좋고 편리한 위치와 천리향 생활권까지 겸비한 곳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

|   |   |   |
|---|---|---|
| <b>부에나파크 웨어하우스 리스 \$4,400</b><br>약 4000sf, 5번과 91번 Fwy 가깝음, 편리한 교통 커먼웰스와 비치길에서 2블락 서쪽 | <b>애나하임 웨어하우스 리스 \$6,000</b><br>럭셔리사무실 1개 화장실 1개+ 창고 건평 약 5500SF 편리한 교통, 5번 Fwy 가깝음 | <b>라팔마지역 메디컬 오피스</b><br>라팔마병원내 최고 좋은 지역, 자세한 내용은 문의 |
|---|---|---|

★ 주택 / 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 리스팅 전문,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에이전트 케롤 리 ★

New Star Carol 뉴스타 케롤 리

부에나파크 한인타운' 인근으로 오세요~

|  |   |   |
|--|---|---|
| <b>층수가 단지내에 있는 예쁜집 \$68만</b><br>방3화2.5<br>건평 약 1650 SF<br>정성스레 잘 가꾸집<br>편리한 생활권<br>부에나파크 한인타운 5분거리 | <b>완전 리모델링된 타운홈 \$48만</b><br>엔드유닛으로 건평 약 1300SF 외시 꼭 봐야할집. 편리한 생활권에 부에나파크 한인타운 5분!! | <b>단층 하우스 \$63만</b><br>방3화2 건평 약 1100SF 완전 리모델링된 집 정말이쁘게 잘꾸며 놓은 집 손덜때 없고 밝고 환한집 |
| <b>단층 하우스 \$67만</b><br>로스코요테스 컨슈리클럼 인근 방3화2 건평 약 1700SF REO 로 매우 싸게나온 집 TLC 필요함                    | <b>단층 하우스 \$71만</b><br>방5 화2 건평 약 2000SF 매우 널찍한 실내구조에 밝고 환한 집 편리한 교통에 조용한 동네        |   |

2019 뉴스타 <금탑> 에이전트!!

또! 또! 또! 또! 또!

2019년 다수 수상

뉴스타 사이닝스타> 에이전트!!

케롤 리

DRE 01966905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ell 714.345.4989

|   |  |  |   |  |
|---|--|--|---|--|
| <b>플러튼 타운홈 48만5천</b><br>방2화2 건평 약 1,200 CSUF인근 리모델링, 편리한 교통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 | <b>플러튼 67만5천</b><br>방5화2 건평 약 1,404 예쁘게 리모델링된 집 편리한 교통, 위치     | <b>플러튼 110만</b><br>방4화3.5 건평 약 2700 매우 널찍한 단층집 울드 씨힐 지역      | <b>세리토스 타운홈 55만8천</b><br>방2화3 건평 약 1,590 넓고 밝은 집 높은 천장                            | <b>세리토스 69만</b><br>방4화2 건평 약 1400 완전 리모델링된 단층 최고학군 최고지역                    |
| <b>애나하임 새집 52만</b><br>방2화2.5 건평 약 1400 완전 럭셔리한 모던홈 최고 위치 편리한교통          | <b>애나하임 새집 58만</b><br>방3화3.5 건평 약 1700 완전 럭셔리한 모던홈 최고 위치 편리한교통 | <b>라팔마 타운홈 49만</b><br>방3 화2 건평 약 1300 예쁘고 잘 정리된 집 케네디하이 도보거리 | <b>라팔마 69만</b><br>방3 화3.5 건평 약 1500 편리한 실내구조 & 생활공간, 이중집 아래층방 넓은 거실, 케네디하이 옥스포드학군 | <b>라미라다 99만8천</b><br>방5화3 건평 약 2708 최고의 로케이션, 고급 인테리어, 게이트가 있어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 |



# 남가주한인목사회, 2020년 신년하례예배드리고 사업 계획 발표

신임 회장 이정현 목사 “구습 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될 것”



LA 10지구 시의원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가 목회자들의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2020년 신년하례 및 조찬기도회

남가주 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는 지난 6일,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예배 및 조찬기도회를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갖고 2020년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신년 인사를 전한 이정현牧사는 “남가주 한인목사회는 구습을 벗어나 버리고 주 안에서 받은 복을 나누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고자 한다”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목사회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목사회는 2020년 사업계획으로 2월 임.역원 수련회, 3월 3.1절 행사, 4월 증경회장 초청 간담회, 5월 목회자 세미나, 6월 6.25 행사, 7월 목회자 탁구대회, 8월 설교 세미나 및 설교대회, 9월 목회자 세미나, 10월 원로목사 초청 관광, 11월 정기 총회 등을 보고했다.

이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마 7:20-23)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직전회장 김관진 목사는 “새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남가주 한인 목사회가 되자”고 권면했다.

예배는 윤건상 목사의 인도로 부회장 주재임 목사가 대표 기도, 방영섭 목사가 성경봉독, 윤 에스더 목사가 특별 찬송했다. 설교에 이어

부회장 나정기 목사, 박정희 목사, 김용남 목사, 증경회장 박효우 목사가 ‘2020년도 남가주 한인 목사회를 위하여’, ‘남가주 한인교회를 위하여’, ‘3.1절 행사를 위하여’, ‘미국과 우리 조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했으며, 원로 분과위원장 이태환 목사가 축도했다.

김동욱 기자

## “미국의 진정한 힘, 하나님 향한 기독교 신앙”

이춘근 박사 구국기도회와 신앙 강연회



강연회를 준비한 관계자들이 이춘근 박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국기도회와 신앙 강연회를 인도하는 이춘근 박사

이춘근 박사 초청 구국기도회와 신앙 강연회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국제정세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을 주제로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진행됐다.

미주CBMC서부총회(황선철 총회장)와 미주연세대총동문회(이형숙 회장)가 공동 주관한 이번 강연회에서 이춘근 박사는 기독교가 세계 정치사에서 갖는 의미와 미국의 건국이념, 미국 대통령들의 신앙과 그것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등을 서서적 안목으로 소개했다.

특히 그는 올해가 미국 대선과 맞물려 핵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임을 전망하면서, 북한 김정인의 체제 장악력과 내구력이 급속하게 저하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건국된 나라로 자유와 천부인권을 기본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기독교 사상이 나라의 뿌리가 되는 국가”라고 설명하며 “미국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 향한 기독교 신앙으로, 역대 대통령 모두 기독교를 종교로 가졌지만 현재 트럼프 내각은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미국 역사상 가장 복음적인 행정부”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시편 133:1 인용과 어릴 적 어머니가 선물로 주셨던 성경책과 그 밑에 상자로 보관된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하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은 인권과 자유를 무시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사회주의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내구력이 떨어진 북한을 상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연회를 준비한 황선철 회장은 “한국은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공공, 노동, 일자리, 복지, 교육, 인권 등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놓여 있으며, 남북 간의 긴장 고조와 좌우 이념갈등, 정파적 이해관계는 국민들을 심각한 대립과 세대적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 눈물과 기도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모았던 초기 이민 선조들을 따라 고국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 제5회 총신대학교남가주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 60:1)

### 초대의 글

존경하옵는 선 후배, 동기 여러분!

아뢰을 말씀은 아래와 같이 1월 20일(월) 오후 6시 정각에 제5차 총신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로 모입니다. **초대합니다.** 사당동, 양지 캠퍼스에서의 동거동락, 행복한 추억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꼭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새해 2020년도에는 동문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으로 충만하시어 가정과 목회의 현장, 그리고 사역 위에 더 더욱 사랑과 번성, 행복 가득찬 영광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경일 목사

-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PM 6:00 ~ 8:00

\* **장소** : LA 용수산(1층 한식부페)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 **회비** : 1인당 \$30(부부 \$50)

\* **연락** : 회장 (213-507-3875), 서기 (213-718-3079)

- 1부 감사예배

2부 정기총회

3부 신년하례회(경품 및 각종 선물 전달)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CHONGSHIN UNIVERSITY

회장 김경일 목사  
서기 정충일 목사





#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심정

사도행전 20:27-3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가서 그들의 가족과 함께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1:3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5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고기의 유무(有無)를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헛수고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승낙도 없는 길에서 허욕과 허세를 일삼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밤새 애를 쓰며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나이다”고 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생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 엮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신앙고백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길을 정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또 한 차례 쓰디 쓴 실패를 재촉하는 결과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하셨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으로 잡혔습니다. 제자들은 전문적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상식을 바탕으로 욕심껏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승낙하시고 말씀하시는 길에서만 얻어질 소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 보았고 시몬 베드로는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겔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가 가득한 배를 끌고 육지에 올라 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옛 삶으로 돌아가기를 시도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미워하거나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지쳐있는 그들을 위해 떡과 생선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없는 회개가 심령 속에서 폭발하듯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주여, 주여”하면서 좇았지만 그 분을 배신하고 옛 생활로 돌아온 자신을 위해 알뜰하게 보살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허탈감과 실패라는 쓰라림에서 넘치는 소망의 벽찬 기쁨을 얻었고 배고픔도 예수님을 통해 배불릴 수 있었으며,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것 뿐 일 것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하셨고 베드로는“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하시고는 재차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의문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했더니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하셨습니다.

목자는 양떼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양떼가 목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며, 목자가 양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자기 마음대로 양떼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의 주인되시는 예수님의 지시하심대로 보살피고 가꾸어 드려야 합니다. 목자 자신에게 유익한 양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고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고 급히 가는 상황이었습니 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불렀습니 다. 교회 장로들은 지금의 목사와 같습니다.

본문 27절은 사람을 살피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떠한 꺼리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양떼이기 때문에 그 양떼는 예수님과 같은 비중을 두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염려하고 혹여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될까 걱정하며 말씀을 전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야단을 맞지만 지옥 길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을 갖추라고 칼 날 같은 말씀으로 훈계해 왔습니 다.

그리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말씀은 진리를 깨달

아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늘 시민권이 얻어져서 예수님이 세워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진 사람들의 믿음이 성령으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바르지 못하면 그 지도를 받는 양떼는 올바른 신앙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각성하고 분발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고 하늘 소망의 결실을 목적으로 일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은 성령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에베소 교회의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너희들을 지도자로 삼아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욕심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뜻을 위해 성령의 지시로 세움 받은 직분인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11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맡겨진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신앙으로 양떼들을 잘 관리하는 사명자의 자질과 자세가 올바르게 보여질 때 주님께서는 능력의 큰 손으로 불들어 요긴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 인생은 자기 사역을 통해 자기 영혼과 육신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는 반드시 영적인 소망과 성과를 위한 것 뿐이어야 합니다. 육신의 조건 때문에 꾸밈하고 하소연하는 입술은 반드시 불행의 열매를 거두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하신 말씀은 이단이 들어와 양떼들의 영적인 소망을 짓밟고 교회 지도자들까지 실족시키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어그러진 말’, 즉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말을 하여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항상 깨어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지혜이며,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깨닫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자라날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어떻게 변질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 말씀은 진리이며 불변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불안하면서도 애타는 간절한 심정이었습니다.

32절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님이 거룩케 하셔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 하여금 하늘 시민권자로 세우신 목적 그대로 하늘나라에 결실할 것을 기대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동안 많은 말씀을 듣고 체험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가꾸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처신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든든히 세워줄 것이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얻을 하늘 기업의 후사로 결실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 국 선 교 설 교      |                               |              |                                     |                      |              |
|------------------|-------------------------------|--------------|-------------------------------------|----------------------|--------------|
| 한 국 방 송 설 교      |                               |              | 한 국 신 문 설 교                         |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 경북 기독교 신문                           | 3면 설교                |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 해 외 선 교 설 교      |                               |              |                                     |                      |              |
| 미 국 방 송 설 교      |                               |              |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                      |              |
| COX TV<br>위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AM1540<br>라디오 코리아                   |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
|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90<br>시카고 기독교방송                 |                      |              |
| CTS TV           |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 AM1190<br>LA 미주 복음방송                |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
|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                                     |                      |              |
| 미 국 신 문 설 교      |                               |              |                                     |                      |              |
| 기독일보             |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AM1310<br>기쁜소리방송                    |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FM91.5(SCA)<br>AM1650<br>LA 미주기독교방송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기독일보 창간 700호를 축하합니다

## 주백성교회

God People Mission Church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8:30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4시(화~토)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30  
교육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김성규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 (818) 633-1241  
Scottkin1968@gmail.com

## 에버그린 선교교회

Evergreen Korean Mission Church

### 예배시간 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수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새벽 6시(화, 수, 금, 토)  
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양수철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6952 Van Nuys Bl. Van Nuys, CA 91405  
T. (818) 388-5788





# “린튼 가문, 생명 다해 한국 사랑한 영적 은인”

웨스트 힐 장로교회 제임스 린튼 선교사 초청 ‘신년 선교 부흥회’ 개최



웨스트 힐 장로교회 신년 선교 부흥회에서 설교하는 제임스 린튼(James Linton) 선교사

“저는 전라도 순천에서 태어나 남 장로교 선교부에서 컸습니다. 옛날 선교사들은 오래 살지 못했는데요. 특별히 선교사 아이들의 고생이 심했습니다. 수돗물이 없으니가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 이질로 죽기도 하고요. 우리 어머니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면 집 뒤에 있는 선교사들의 묘지에 가서 사명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웨스트 힐 장로교회(담임 오명찬 목사)는 지난 3일부터 5일(주일)까지 제임스 린튼 (James Linton)를 강사로 ‘신년 선교 부흥회’를 개최했다. 린튼 선교사는 부흥회를 통해 선교의 우선적인 원칙과 한국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던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 열정을 소개했다. 그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

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사도들의 선교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세계 선교의 교본과도 같다”며 “선교는 나의 생각과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튼 선교사는 “남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을 전도할 때, 그들은 기초부터 든든히 세웠고, 상황과 환경

을 넘어 선교를 위해서라면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협의하면서 모든 기틀을 세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며 “나의 방식과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4대째 한국 선교에 매진하고 있는 린튼 가문의 증조할아버지 1대 유진 벨은 1895년 가난한 조선에 도착해 교육과 의료 사역에 매진하며 복음을 전했고, 2대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은 1912년 미국 조지아 공대를 수석 졸업하고 21세에 미국 남장로교 최연소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돼 교육선교에 헌신하던 한남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학장으로 섬겼다. 3대 부친 휴 린튼 선교사와 모친 베티 린튼 선교사는 순천 결핵 재활원을 운영하며 30년 이상 결핵퇴치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1996년에 국민훈장을 받기도 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제임스 린튼 선교사는 1971년 도미하여 학업을 마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대전에서 선교했으며 1995년부터는 북한의 지하수 개발, 우물파기 선교를 하고 있으며 35년 동안 미국에서 건축사업을 하다 현재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자동차 부속을 뜯어 우물 파는 기계를 만들어 배로 실어 나르면서 온 가족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다. 제임스 린튼 선교사의 형 스테판 린튼 선교사는 1994년 유진 벨 재단을 설립해 북한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동생인 인요한 선교사는 서울 세브란스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선교 부흥회를 개최한 웨스트힐 장로교회 오명찬牧사는 “린튼 가문은 한국을 사랑한 영적인 은인으로 생명을 다해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며 “성공이 아닌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자”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 WMU 서울장신대, 아세아연합신학대와 MOU 체결로 대외 협력 확장

월드미션대학교 2020년 봄학기 신입생 입학 설명회 개최

남가주 지역 한인 기독교 종합대학인 월드미션대학교(World Mission University 총장 임성진 박사)는 지난 7일, LA 본교에서 2020년 봄학기 신입생을 위한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인 신학교 최초로 ATS(기독교신학대학원협의회)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월드미션대학교는 지난해 서울장신대, 아세아연합신학대와 MOU를 체결하고, 인천에 위치한 주안대학원대학교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외 협력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학교는 “100% 온라인 교육으로 세계 30여 개국, 미국 내 24개 주에서 200여 명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혀, 온라인 교육 시대를 실감케 했다. 이날 입학설명회에는 각 학과 교수 및 행정 직원들이 입학과 전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올해로 개교 31주년을 맞는 월드미션대학교는 준학사 과정으로 성



좌부터 신선목 부총장, 임성진 총장, 입학처장 최윤정 교수

서학과와 기독교 상담학과, 학사과정으로 성서학과와 기독교상담학과, 간호학과, 석사 과정으로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예배학, 박사과정으로 목회학, 교회 음

악학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 WMU 상담교실, 비영리단체 사역자, 유아교육 원장, WMU 바이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수료 과정으로

두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날 “미국 본교와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비롯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신

학, 기독교상담학 등을 공부할 수 있다”며 “양질의 온,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1-20 발급, 유학생 장학금을 비롯해 목회자/선교사 장학금과 연방 및 주정부 학비 지원과 다양한 학생용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월드미션 대학교는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라는 목표와 신념 아래 1989년 3월27일 설립됐으며,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 훈련과 학문으로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다. 또 기독교대학연합회(ABHE),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정회원 신학대학으로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기독교 정신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봄학기 입학 관련 문의는 웹사이트 <https://www.wmu.edu>, 이메일 [admissions@wmu.edu](mailto:admissions@wmu.edu), 전화는 213-388-1000 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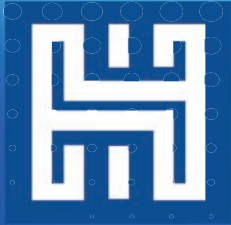
## HERCULES INVESTMENTS 헤지펀드 투자전략 한국어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헤지펀드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헤지펀드 투자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앞으로 있을 시장조정, 또는 크래쉬에 대비하시고 계신가요? 부동산 말고도 폭락하는 시장에서도 더 큰 수익을 올리시고 싶으신가요? 지난 24년동안 축적한 헤지펀드 투자전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산도 지키시고 내려가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올리실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알아가세요.

JANUARY 18TH, SATURDAY 1:00 PM

HOSTED BY HERCULES INVESTMENTS

LOCATON: REGUS-LADERA CORPORATE TERRACE  
999 CORPORATE DRIVE #100 LADERA RANCH, CA 92694



HERCULES INVESTMENTS

HEDGE FUND WEALTH MANAGEMENT INSTITUTIONAL

RSVP: (714)469-3553

김윤희 부사장

(자리가 부족할수도 있으니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www.hercules-investments.com](http://www.hercules-investments.com)





HAPPY NEW YEAR

2020



# Puente Hills Hyundai

##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 HAPPY NEW YEAR SPECIAL SALE



###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1-888-644-711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남가주 여성목사회, 제10대 회장 김인숙 목사 취임



남가주 여성목사회에 제10대 회장단 이·취임식 기념촬영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는 지난달 29일, 제10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LA 광명교회(담임 김영석 목사)에서 열린 이·취임식은 1부 예배와 2부 이·취임식으로 진행됐다.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수석부회장 최

영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는 권보라 목사가 기도하고 김숙영 전도사가 특송 한 후 권다니엘 목사(유나이티드바이블 유니버시티 총장)가 “영적 조감도”(계12:1-12)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전

한 김인숙 목사는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때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봄의 새로운 탄생을 따라 여성 목사회

의 발전을 위해 힘쓰며, 여호수아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 여성목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교계 단체로 이끌고자 한다”며 “회장 임기 동안 바른 신학세미나로 후배 양성과 선교, 전도 세미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호 목사(두란노 신학교 총장)가 축사했으며, 백지영 목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증경회장), 김영구 목사(남가주 목사회 증경회장), 권다니엘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류당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제 2차 원포인트 세미나, 드라마틱 강해설교 원고작성 비법 공개

오는 20일(월)~21일(화)까지 한길교회, 신성욱 교수 인도



신성욱아세아연합신학교 설교학 교수, 프레토리아 대학(Ph.D.), 저서로 《이동원 목사의 설교 세계》,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등이 있다.

제 2차 LA지역 원포인트 강해설교 세미나가 오는 1월 20일(월)부터 2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에서 열린다.

원포인트 강해설교란 성경 본문의 핵심인 원포인트로 흘러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설교로, 신성욱 교수는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29가지 수사 기법, 독창적 설교예화 수집 및 저장 방법, 설교 개요 작성 실습 등 세미나를 통해 감동적이

고 드라마틱한 설교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사로 서는 신성욱 교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M.Div.)을 공부하고,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미니티 스쿨에서 구약학 신학석사(Th.M), 칼빈신학교에서 신약학 신학석사를 공부했으며 남아공에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는 신목사에 대해,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보기드문 설교학자로, 한국 강단의 문제를 극복할 설교의 대안을 찾는 후학들에게 그의 설교 세미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50달러며, 대상은 신학생, 목회자, 사모, 선교사이

다. 문의: 213-718-1512 이인규 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매일 찬송가 암송하며 하나님 사랑 기억합니다”

장애우 사랑교회 제28회 성탄절 찬송가 암송 경연대회 개최



제28회 장애우 사랑교회 성탄절 찬송가 암송 경연대회 후 미스 짓는 양로병원 할머니들

성탄을 며칠 앞둔 지난달 21일, LA 중앙 양로병원에는 신앙 고백을 담은 노인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애우 사랑교회(담임 목사 오진형)가 개최한 제28회 찬송가 암송 경연대회에는 15명의 노인들이 참가해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1절부터 3절까지 암송해 불렀다.

특별히 이날 경연대회에는 불신자로 살다가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례를 받은 남진선 할머니도 참가해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찬송가 암송 경연대회는 노인 치매 예방과 전도를 위해 장애우 사랑교회가 19년째 해마다 두 차례의 진행하고 있다.

오진형 목사는 “양로병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찬송가 암송 대회를 준비하며 소망과 기쁨을 갖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양로병원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찬송가 경연대회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이날 찬송가 경연대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는 오진형 목사 인도로 제임스 오 장로가 대표기도, 필그림 오케스트라의 특별찬양이 이어졌

다. 이날 설교는 송종호 목사(은혜한인교회 부목사)가 “너는 내 것이라”라는 제목으로 전했으며 양승걸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미동맹협회,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마가교회, 천사매실원, Sunny 겨우살이, 마동환 변호사그룹, M.G 그룹, 올림픽 칼국수, 황해도 도민회 교역자회, 기독일보가 협력했다.

김동욱 기자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성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원 목사(편저자)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a@igideonbrothers.org | www.igideonbrothers.org

문의 방법: Pay to: G.B.M.W. 메크오더영리회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굴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기쁜우리교회 다섯 명 유아 세례로 기쁜 성탄 맞아



성탄예배에서 김경진 목사가 다섯 명의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성탄 예배는 어느 때보다 기쁨의 소식으로 충만했다. 성탄 예배 중에 5명의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경진 목사는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성장의 원동력인 세례를 받은 유아들로 인해 성

탄의 의미가 더욱 컸다”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소식이 이어지는 교회, 복음으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연합찬양대와 오케스트라는 헨델의 메시아 연주로 성탄의 기쁨을 노래했다. 이인규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고 선택하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한미 푸엔테힐스 현대 Puene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1-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GA), 목회학석사(M.Div.), 성경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철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ueu.edu aeui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       |  |
|-------|--|
| 신학대학교 | 신학과(B,A)   126학점                                   |
|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br>■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

###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척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가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             |                              |
|-------------|------------------------------|
| CNA, RN 준비반 | 월,화,수 오후 2시~4시               |
| 채혈사 준비반     |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
| 상담문의전화      | 818-624-9106<br>213-272-6031 |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                                    |                                     |  |
|------------------------------------|------------------------------------|-------------------------------------|--|
| <b>학사과정</b><br>(B.Th/B.A)<br>126학점 | <b>석사과정</b><br>(M.Div/M.A)<br>96학점 | <b>박사과정</b><br>(D.Min/Ph.D)<br>48학점 | <b>학생수시모집</b><br><br><b>등록상담전화</b><br>310-678-6836<br>213-249-6924 |
|                                    |                                    |                                     |  |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LA지역 제2차

#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오전 9시 ~ 오후 6시  
21일(화)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 한길교회 (담임 박찬섭 목사)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회비** : \$50

**등록 및 문의** : T.(213)739-0403, (213)718-1512

##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원고작성 비법 공개

### 초청의 말씀

설교에 변화를 원하는가? 성경 본문의 핵심인 원포인트로 흘러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설교를 해보지 않겠는가? 기존의 설교 세미나와는 근본적으로 차별화 되는,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엑기스 한 덩어리를 캐내어 참신하고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설교의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비결을 공개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구약을 전공(Th.M)하고 남아공에서 수사기법(효과적인 절달)을 전공(Ph.D)하고,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프레임>을 독창적으로 개발한 신성욱 교수의 놓칠 수 없는 독보적인 세미나에 설교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신성욱 교수

### 강사 소개

신 교수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구약 석사 과정(Th.M)을 수료한 뒤 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 석사학위(Th.M)를 받은 뒤 University of Pretoria 대학에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이동원 목사의 설교 세계> 등 다수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설교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그는 그간 국내외적으로 많은 설교세미나를 인도해 온 경험이 있다. 특히 그는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를 창안하여 <목회와 신학> 및 세미나를 통해 계속 공개하고 있다.

### 이동원 목사(지구촌 교회 원로)의 추천사

“신성욱 교수님은 보기 드문 설교학자이십니다. 이론과 실재를 구비하고 신구약과 수사기법을 장착한 이분에게는 촌철살인의 유머와 깊이 있는 말씀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한국강단의 문제를 극복할 설교의 대안을 찾는 후학들에게 신 교수님의 설교세미나를 강추합니다.”

### 설교세미나 1차 집중강의 계획

| 일 시       | 시 간              | 내 용   |
|-----------|------------------|---|
| 1월 20일(월) | 오전 9시 ~<br>오후 6시 |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29가지 수사기법, 7단계 석의 및 설교작성법 샘플 소개(막5:21~43)   |
| 1월 21일(화) | 오전 9시 ~<br>오후 6시 | 독창적 설교예와 수집 및 저장 방법, 설교개요 작성 실습1(창4:1~5a),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 설교문 샘플 소개 1, 설교개요 작성 실습2(요6:1~15),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 설교문 샘플 소개 |

\*ACTS in USA 프로그램 소개 : 미국 학위로 D.Min & Ph.D in preaching 두 과정을 개설함. 본강의를 수강한 이에게는 3학점 1과목을 인정해 드립니다.

**주최:기독교일보 후원: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한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



# 기독일보 창간 700호를 축하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9, 2020 Vol. 700

## 그늘진 곳까지 두루 살펴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복음신문을 기다립니다



민승기 목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2020년 새해 출범과 함께 기독일보 창간 16주년 700호 발행을 축하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민 곁에서 지역을 굳건히 지켜온 기독일보가 지난 16년 간 흔들리지 않는 첫 마음으로 지역 정론지로서의 사명을 다해 준 데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단단한 지역 언론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의 그늘진 곳까지 두루 살펴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따뜻한 지역에 복음신문을 기다립니다.

독일에서는 “가장 좋은 가정교육은 신문을 읽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복음신문이 세상에 일간지를 구독하듯이 모두가 구독할 수 있는 복음신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독일보 창간 16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모든 구독자들의 사랑과 신뢰로 더 크게 도약하는 기독일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역신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역사회는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나 마찬가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신문이 갖고 있는 건전한 비평과 공정한 보도, 다양한 정보제공 등 순기능이 올바른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일보는 지역의 여론을 모으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지역 언론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기독일보가 교회와 성도들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껏 지켜온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대변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독일보와 함께 달려 나가겠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해왔듯이 앞으로도 정론직필 정신을 잊지 마시고 언론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회원 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구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생동감 있는 취재와 사실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창간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구독자들의 사랑과 관

심 속에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차별화된 뉴스와 정보는 독자들이 갈망하는 대상입니다. 독창적이고 뛰어난 내용으로 승부를 건다면 기독일보는 더욱 성장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미디어 시대는 삶의 양식은 물론 미래 인재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의 변화가 눈부실 정도로 빠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기독일보가 구독자들을 만족시키는 복음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년을 향해 달리는 기독일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원들과 함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 보수 정통 신학을 사수하고 메마른 땅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정완기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철칙이 있듯이 잘 살고 못 살았어도 어제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라는 뒷에 걸려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지 못한다면 이 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365일 24시간이라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 숙제가 축복의 정당일지 아니면 시험과 환난과 우울과 병과 사고와 온갖 환난으로 낙제 점수가 될지는 출발하는 자세에서 그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개혁신학자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을 입고 출발하는 새해에는 기필코 축복이라는 A학점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돌아보는 지혜와 겸손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세대를 리드해 가는 성도의 삶 속에 기쁨 승리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지령 700호를 맞이해 도약하시는 기독일보는 첫째 모두가 보고 싶은 신문입니다. 둘째 모두가 읽고 싶은 신문입니다. 셋째 모두가 기다려지는 신문입니다. 넷째는 모두가 이웃에게 전해주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신문입니다. 다섯째는 모두가 길이 간직하고 싶은 신문입니다. 보고 싶고 읽고 싶고 기다려지고 이웃에게 전해주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신문

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수 정통 신학을 사수하고 성도들의 신학과 신앙의 질을 높여주며 현실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보석과 같은 기사들은 참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내시는 존귀한 기독 일보는 이 땅에 그 존재 가치가 타 신문사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신앙의 지침서로 믿음의 이정표로 신학의 발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십자가의 도를 실어낸 격조 높은 신문이 되어 성도가 지켜야 하는 신앙의 도표를 설정하게 하는 지침서가 되고 있는 기독 일보는 해가 더할수록 독자층이 배가 되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신앙의 길을 기독 일보로 통일되게 하시는 원동력을 갖춘 능력에 찬사를 드리며 축하합니다.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문서로 전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 일보는 문서로 전해주는 문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여 장장 700호까지 줄기차게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령들을 통하여 문서 선교의 지대한 꿈을 이루고 이민 사회에 등대와 같이 우뚝 서서 성도들의 경건과 지성과 신앙을 선도해 나가는 보석과 같은 신문사가 되기를 바라며 축사를 대신합니다.

## “생명의 큰 등불 되어”



이정현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물가에 세워두고 양떼가 물 마시러 올 때, 나무 무늬를 본 양들이 새끼를 배어 얼룩덜룩 아롱진 것을 배드로 얼룩무늬 양떼를 많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무늬만 기독교 옷을 걸치고 괴이한 형태의 삶을 사는 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참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속살까지 배이도록 함께 개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독일보는 ‘십자가 군대의 큰 나팔’ 되어 회개와 갱신으로 무장하고 무소불위의 힘으로 드넓은 땅에 거침없이 불어 대는 날 미주전역은 물론 지구촌 5 대양 6 대주에 흩어져 있는 750만 디아스포라와 동토의 북녘 땅 2,000만 동포들에게도 희년의 감동과 환희가 울려 퍼질 것으로 확실합니다.

기독일보는 이 시대의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사명과 진리가 사라져 어두워져 가는 지구촌 열방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희망과 생명의 큰 등불이 되어줄 것을 소망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지역과 이념과 교파의 담을 헐고 공존하고 상생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나팔 기독일보 창간 16주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축, 기독일보 창간 16주년, 지령 700호 '그리스도 코드'로 세상을 읽는 신문이 되어 주소서!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2020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한국어 강의

I-20 발행

ATS, ABHE 정회원



연방정부 재정지원 (유자격자)  
재향군인 재정지원  
각종 장학금 혜택



미국 군중  
군복 지원자격



온캠퍼스/온라인(캔버스)  
현장방문교육

## | 학위 과정 |

- B.Th. | 신학학사
- M.Div. | 교역학석사
- MAICS | 선교학석사
- MACCP | 크리스천상담심리석사
- Ph.D. in Contextual Studies | 선교학철학박사

모집마감 | 2020년 1월 24일

지원방법 | 온캠퍼스 학생 - [www.ptsa.edu](http://www.ptsa.edu)에서 행정서식->입학관련 패키지(또는 [bit.ly/ptsacamp](http://bit.ly/ptsacamp)) | 온라인 학생 - [bit.ly/ptsacamp](http://bit.ly/ptsacamp)

입학문의



1.562.926.1023, ext. 303



[kmkoo@ptsa.edu](mailto:kmkoo@ptsa.edu)



[www.ptsa.edu](http://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LIFORNIA 90670



##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박상목 목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 사회와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금년에는 여러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일보는 크리스천 신문사로서 이런 위기들에 대한 공정한 기사 내용과 그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다루며 뉴스와 기사를 전달해 온 좋은 선례를 보여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동안 이민 사회에 영향을 끼쳐온 교회와 한인회라는 양축이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봉사하며 섬겨야 한다는 본질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로 인해 중동 위기가 다시 대두되며 온 세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와 문제와 염려스러운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지난날 미진했던 교협의 활동에서 깨어나 더욱 영적으로 분발하며 OC 지역 내의 여러 한인 단체들과는 진솔한 소통으로 봉사하며, 한인교회들과는 서로 협력함으로 사랑을 나누며, 목회자들과는 기도로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꿀벌 같은 OC 교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세상은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진하길 바랍니다



준 김

기독교일보 이사장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독교일보 창립 16주년, 700호 신문을 발행하도록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성실히 땀 흘리며 수고한 기독교일보 모든 임직원들에게 마음을 담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16년을 돌아볼때 기독교일보는 우직하게 한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종이 신문과 특별히 인터넷을 이용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세계에 전해왔으며, 성경적 가치관을 수호하고 다음세대를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따라 눈물겹도록 헌신해왔음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문서 선교를 통한 기독교일보의 복음전파는 헌신과 열정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남가주 모든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의 후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면을 빌어 기독교일보를 사랑하시고 모든 협력과 기도를 아끼지 않은 교계 관계자분들과 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독교일보가 사회를 깨우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알찬 기획과 정론직필로 미주 한인교회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독교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실과 열정으로 달려온 지난 16년, 700호 신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로 확정짓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기독교일보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언제나 동행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생명을 걸고 교회를 일깨우는 기독 언론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규남 박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총장

기독교일보 창간 16주년 및 7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독교일보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해주시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일보는 복음주의 신문으로서 지난 16년 동안 복음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기독교일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하여 지난 16년 동안 진리를 수호하고 항상 독자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며 사실의 명확한 전달에 힘쓰며 기독교 신문이 지켜야 할 모든 규범과 도덕성을 견실하게 지켜왔습니다.

교회사를 포함한 역사신학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당대의 어떤 신학적 흐름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등장했던 이단적인 신학과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해 보다가 그 신학적 흐름이 위협성을 넘어 갈 때에는 경고를 발령하고 교회를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언론의 사명은 역사신학처럼 오늘 날의 기독교계의 흐름이 성공주의, 반영 및

기복주의, 용공주의, 금권주의, 교권주의 같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점검하고 보도하고 있다가 위험한 요소들이 발견될 때에는 전혀 주저함 없이 존 위클리프, 마틴 루터, 장 칼뱅, 존 나스, 주기철, 손양원처럼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생명을 걸고 교회를 각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일보가 그런 기독교 신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기독교일보를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더욱 진실을 명확하게 전달되는 기독교 신문이 되며
2.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기독교 신문이 되며
3. 다른 기독교 신문이나 언론들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 언론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선도자(first mover)가 되며
4.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된 언론으로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추구하는 기독교일보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김창현 박사

미주대한신학교 총장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열악한 이민 목회의 척박한 환경에서 기독교일보가 뜻깊은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으로 애오라지 이 일을 감당해온 이인규 목사님과 임직원들의 노고는 참으로 작지 않습니다.

종교지는 일반 신문과는 그 궤를 달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 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지녀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나 교회 광고를 하는 것에 그친다면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사회 인식이 필요하고 자유와 정의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자들에게 신학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이단 사설에 얽매이지 않도록 깨우침을 주어야 하고 합니다. 기독교일보가 이 일을 해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이민 목회의 늘 푸른 소나무가 되고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기독교일보 창간 700호를 축하합니다



총장 김종용 목사

입학문의 상담 : 213-272-6031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그리스도 코드’ 로 세상을 읽는 신문이 되어 주소서!



이상명 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경자년(庚子年) 새해 하나님 은혜가 기독일보와 독자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독일보 창간 16주년, 지령 700호를 축하드립니다. 미주 기독일보는 2004년에 창간되어 이제껏 미주 한인 이민교회와 사회의 대표적 기독교언론사로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일보는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읽고 해석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에 말길과 글길을 열어주는 것을 그 본연의 사명으로 하는 언론기관입니다. 기독일보는 기독교언론의 정신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성도와 교회를, 교회와 세상을,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기독일보가 우리 이민교회와 사회의 연로(言路)를 열어주어 그 길을 따라 좋은 소식과 바른 소식이 우리

사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정론지의 사명은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가짜, 비진실, 거짓 지식과 정보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지배하는 아주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리와 비진리를 규명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고 가십거리와 황색 저널리즘에 열광합니다. 왜곡된 정보와 변질된 기사가 진리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시대입니다. 온갖 정보통신망으로 덮여진 초연결 사회의 역설입니다.

현시대는 보편 진리, 절대 진리는 이미 없는 것처럼 모든 전통적 가치와 사회적 권위와 도덕적 기준을 상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서로 상대적이기에 어떤 행

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절대적 도덕이나 권위는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주장하는 가치, 신념, 진리와 생활 양식을 모두 동등하게 여기고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대표적 경향 때문입니다.

기독일보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라”(마 5:37)는 구절을 사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훈이 모든 언론이 지녀야 할 사명이요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문화나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 목적에 역행할 때 단호히 ‘No’라고 선언할 수 있는 기관이 기독교언론사입니다.

모든 사회는 예외 없이 복음의 빛에 비추어 저항하고 복음으로 싸워야 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이 저항해야 하는 것은 문화 자체가 아니라 문화 속에서 활개 치는 악한 영의 세력이며 그 영에 만취된 세속 권력과 제도입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를 살아가는 교회도 그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일보가 ‘그리스도 코드(Christ code)’로 문화를 읽고 해석하여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언론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코드’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삶과 사역의 원리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독일보가 온갖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되는 혼란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 코드에 근거한 정론과 정견으로 지식과 진리를 교회와 세상에 유통하는 기독교정론지로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력을 공급하는 기독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독일보 창간 16주년과 7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2019년은 가치관의 혼돈과 불확실한 미래를 분명히 보여 준 어지러운 한 해였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방향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고 제자리를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제멋대로 흘러가기에 모든 사람이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주저 앉고 싶을 때 교회마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진영의 논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식과 법도를 무시하고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이 격랑에 휩싸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그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바로 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썩어져 가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가치관을 상실한 세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죽어 가는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복음을 들고 교회가 세상에 회복의 능력을 공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이요 소망으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며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은 실망하여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후에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일순간 벗어 던지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뿔뿔히 흩어지고 낙담하여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열정을 회복하여 순교하기까지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도한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으며 주변 사람들과 그들을 외침을 듣고 목적을 회복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

니다.

그들의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받고, 교제하고, 떡을 떤고, 기도예 전심전력 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의욕을 상실하였던 그들이 부활사건으로 다시 모여 한 목적, 한 메시지, 한 믿음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이 전도하고 교회가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기독일보를 통해 개인과 교회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여 열정과 교회의 목적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계선교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성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동포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문, 동포들께 위로가 되는 신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에드워드 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 에드워드 구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신과 믿음으로 교회와 교계에 다양한 애독자들을 만나고 있는 기독일보의 창간 16주년 및 700호 발행을 민주평통LA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독일보는 기독교언론 정론지로서 바쁜 삶 속에서 생활의 정보와 삶의

안내서 구실을 꾸준히 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함양시켜온 성실한 신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시대의 지침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기독일보를 접할 수 있길 바라며, 신앙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인류애적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힘써주는 저희 동포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해 동안 계속되는 불황으로 동

포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 종교계가 종파를 떠나 안정을 꾀하면서 진실로 국가 안위와 세계 공동 번영의 길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도 모색하고, 이민자로서의 고단한 삶의 여정을 펼쳐가고 있는 동포들께 위로가 되는 신문이 되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2020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동포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이 더

크게 비상하시기를 바라며 해외에 있는 한국인의 위상과 동포사회 권익을 위한 노력이 있기를 바라며 화해와 협동, 안정과 평화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지역협의회도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라는 슬로건으로 동포여러분들과 공감하는 통일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가주 10대 한인여성목사회

목사안수 받은 여성 목회자님!  
남가주 한인여성목사회에 임원으로  
가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회장 김인숙 목사

문의 : T.(213)808-2778


주소 : 2975 Wilshire Blvd. #P., LA, CA 90010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Women Ministers Association



#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문서선교의 사명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박희민 목사**  
새생명선교회 대표  
KIMNET 이사장

2020년 1월 9일 자로 700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인터넷 시대가 등장하면서 신문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중단 없이 기독 언론지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올뿐 아니라 장족의 발전을 해온 기독일보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변호할 뿐 아니라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기독일보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흔히 제4의 정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언론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여론을 조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기독언론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6년간 700호를 발간하면서 기독일보는 다른 여러 기독 언론지들보다 편집도 깔끔하고 내용도 알차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장 발전해 온 것을 축하합니다. 기독일보는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전파하며 증거 하는

문서선교의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지난 2천 년간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는 유혹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려는 노력과 사명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온 것을 치하드립니다. 기독 언론지의 사명은 선교적 사명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 특별히 탈기독교 또는 반 기독교 문화로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변호할 뿐 아니라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기독일보는 바로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사회와 교계의 바른 가치관과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전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독 언론의 사명 중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사역하며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영성이 풍성한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인도하는 지팡이 또는 나침반의 역할을 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교계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도 많이 힘쓰고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교계의 일치와 연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약점의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므로 권위가 추락되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지도 못하고 비웃음을 받을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되고 연합할 때 복음도 더 효율적으로 전할 뿐 아니라 대정부나 사회를 향해서도 더 강력한 보이스를 낼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가 차세대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해온 것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1세대들이 이루어놓은 신앙전통과 사역을 차세대들에게 잘 전수해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바로 이어주지 못할 때 1세대들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없

고 소망이 없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혼신을 다해 헌신해 온 기독일보 사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1000호, 그리고 20주년, 20주년을 향하여 더 큰 비전과 사명을 갖고 한인 이민사회에서 기독교 문화 창출을 위해 더욱 창의적인 노력을 하며, 한인사회를 탐회해서 미국 주류사회와 소수민족에게도 읽히고 영향을 주는 기독 언론지가 되기를 묘책 해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발 맞추어 어떻게 신문이라는 매체를 이어가면서도 5G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기독 미디어로서 생존해 갈 수 있으며 성장 발전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은 YouTube를 통한 인터넷 TV 방송이 공영방송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시청자를 자랑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기독일보가 Upgrade 되고 놀라운 발전을 통해 더욱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의 매체로서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축사를 가능합니다.

#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전달하는 복음의 메신저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만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에 매주 40시간씩 5년 내내 그 일에만 몰두해야만 총 1만시간을 채울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실패와 좌절, 역경과 고난의 긴 여정을 체험하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독일보 700호 발행은 획기적인 정표요 축하할만한 일이다. 1만 시간보다 몇 배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기독일보는 더 좋은 매체, 더 전문적인 크리스천 복음의 메신저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인규 사장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기억난다. “화합과 화평을 도모하는 기사만 전합니다.” 그

말 그대로 기독일보는 지금까지 뛰어왔다.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앞과 위를 보며 달려왔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독일보의 신념과 목적을 고깝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뭔가 남의 치부를 드러내고 약점을 지적하고 허점을 찌르는 선정적인 기사와 뉴스가 독자의 눈을 끌기에 그렇다. 그래야 신문이 팔린다, 그래야 광고주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이게 시장원리라고 주장하고 조언한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방법에 근거한 생각이지만 성경적 경영원리가 아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꾸려가는 공동체는 뭔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 무지, 무능력으로 간주한다.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다름이 중요하다. 그 다름이 당연히 다른 결과를 맺도록 한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세지인 희소식 (Good News)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 매체는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전달하다. 즉,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경제원칙에 따라 큰 성과를 얻는 것이다. 세상이 별 볼일 없다 평가해도, 하나님이 “큰 자다” “충성되다” 여기신다. 이것이 차이이다. 이것이 고결하다. 남의 허점만 찌르는 매체가 있다. 일반 사회에도 그런 매체가 있고,

딱하지만 기독교 매체도 그런 일에 올-인 하는 곳도 있다. 이들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덕을 세우고, 서로를 존중하고, 악한 자를 세워주기보다 오히려 때리고, 까고, 뒤엎고, 치부를 드러내려 안달한다. 물론, 교회와 부실과 리더들의 부정을 무조건 덮어주자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정도는 “正道”, 즉 올바른 길과 방법이고, 둘째 정도는 “어느 정도, 어느 선”을 말한다. 이 두가지 정도를 범하는 기독교 매체는 사람과 교회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도 한다. 기독일보는 그런데 눈이 먼 것 같아 참 기쁘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주님만의 의



**제이슨 송**  
새언약초중고등학교 교장

지하는, 주님께서 흐뭇해 하실 소식, 범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덕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과 향기를 끼치는 기독일보가 되길 바라며 기대한다.



**김종용 목사**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총장

# 시대적 사관(史官), 사초(史草)의 역할을 요청합니다

먼저 창간 16주년 및 7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기독언론 정론지로서 복음과 교계소식을 아름답게 전하기 위하여 16년동안 노력해왔고 이 캘리

포니아 지역에서 많은 기독 언론 가운데 모범을 보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정도를 위하여 고군분투해 온 기독일보에 감사드립니다.

언론은 시대의 사관이며 사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상업주의에 물들지 말고 고귀한 품격을 지닌 기독언론 정론지로서 성장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 기독일보 창간 700호를 축하합니다

#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  
(Believe Like Jesus)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2부) 오전 11:3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소 및 전화**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 GLOBAL IMPACT UNIVERSITY

전 세계에 복음으로 임팩트를 주는  
**글로벌임팩트 대학교의 목적**  
글로벌임팩트 대학교는 학생들을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과 탁월한 사역 역량으로 구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와 글로벌 사회에서 진실되게 섬기며 사역하게 위해 존재합니다.

**글로벌임팩트 대학교의 비전**  
미전도 아시아 타종교권 현지인 목회자 및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이들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 세계 복음화와 제자화를 이룬다.

**교육 프로그램**

- 수료증 (4과목: 총12 학점 이수)
- 대학원석사학위 (10과목: 총 30학점 이수)
- 세부전공:
  - Biblical Leadership성경적 리더십
  - Christian Church Ministry교회사역
  - Global Missions글로벌선교
  - Biblical Teaching and Preaching성경교육과 설교
  - Christian Family and Counseling기독교가정상담



**김만태 총장**  
(전) 스리랑카 선교사  
연세대 영문학과 졸업  
물리신학교 선교학 Ph.D.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계 7:9)**  
**“...From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Rev. 7:9)**

**Global Impact University (GIU)**  
2975 Wilshire Blvd, B01, Los Angeles, CA 90010  
(213) 531-7215, (213) 833-8208      Info.lagiu@gmail.com  
www.gimpactuniversity.org



기독일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선희 목사  
세계기독교이단상담소장

기독일보 창간 16주년, 700호를 맞이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한부종말론, 엔터티 영성, 잘못된 구원론 등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주의 교계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작금의 LA는 영적 수은주가 마이너스입니다. 진리가 훼손되고 비 진리가 난무하고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이 이단대처 사역자를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한국 기독일보는 1991년, Branch인 미주 기독일보는 200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6년전 기독일보가 LA에서 창립 초기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자라 이제 teen ager의 한 중앙에 와 있습니다.

훌륭한 말씀들을 귀한 분들께서 하실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저는 잠 16:1-9절 말씀으로 축하하고자 합니다. 기독일보를 지금까지 경영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그 분이 응답(reply)해 주심에(1절) 감사와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그 분이 이루어(succeed) 주심에(3절) 감사와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그 분이 인도해(directeth) 주심에(9절) 감사와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영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와 진리를 잘 지키고(8절) 전파하는 기독언론이 될 줄 믿고 감사와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축시 온 세상 밝혀라!

16세 미소년 기독일보는 하나님의 손으로 자랐도다! 700고개 넘는 뜨거운 정열로 복음의 나팔 불어 세상 깨워라!

고아처럼 뒹굴었지만 동토가 춘풍에 녹아지듯이 은혜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청년의 정열에 온 세상 녹아지리니 씩씩한 미소년으로 자라왔다

거친 바람을 가르며 순수한 미소년 기독일보여! 힘차게 달려온 16년의 세월! 믿음의 기상으로 세상 밝혀라! 한 번의 멈춤도 없이

넘고 떠 넘어온 700개 고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믿고 의지함으로 전진 또 전진 하여라.

16세 미소년 기독일보여! 밝은 소식으로 세상 비추는 등대가 되라!



강태광 목사  
World Share USA 대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절제의 미덕으로 교회를 살리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이인규 사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뜻깊은 생일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간 16주년과 지령 7백호라는 역사가 새겨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미주 한인교계가 밝아지고 환하게 빛이 나는 뉴스가 더 많아지고, 더 자주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막14:9)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녀의 이야기도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미주 기독일보에서도 아름다운 이야

기, 감동적인 소식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성공한 이야기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체험과 아주 작은 교회 공동체의 생생한 증언들을 나누게 되면,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안목에서 바른 견해를 나누도록 진리와 진실이 널리 나뉘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 관점이 올바른 기독교의 윤리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종교개혁사와 개신교 신학을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가 성공회 소속 신부이면서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매

우 탁월한 저술과 연구를 발표하곤 했습니다만, 앞장서서 성공회에서 동성애 신부를 인정하라고 투쟁을 벌인 자였습니다. 양성평등과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명분 등을 내세우면서, 동성애는 소리 없이 현대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 장로교회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유린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분들이 미국에서 목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학문적 성취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당당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배운 영국의 엘리트들과 우수한 인재들은 무엇을 주장하게 될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지식은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며, 교만한 논쟁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게 됩니다(고전 8:1). 교회가 위기에 처한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기독교 관련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살려내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고, 자기주장이나 큰 목소리로 힘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하는 말에는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만 교회가 덕을 실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은 매우 중요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나 새로운 정치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국가에 건설적인 기여를 해야 할 절체절명의 사명을 인식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데 있어서, 미주 기독일보가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미국의 영적 부흥과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기독일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순영 목사  
JAMA대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기독언론의 사명을 잘해주신 기독일보의 창간 16주년과 7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와 격려와 축복을 전합니다.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16년 전에 출발하여 전국 주요 도시들에 지사를 설립하고 몇 년 동안은 2세대를 위해 영어판을 만들어 2세대의 사역들을 알리고 그들에게 큰 격려 역할을 했던 점을 높이 평가하며, 어느 신문사보다 열심히, 참신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기사들을 내보내 교포 교계에 큰 도움을 주었던 모습

을 앞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또한 미주 한인교회 소식들뿐 아니라 미국 주류 교계의 소식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국 소식까지 폭넓게 취재하셨고, 미국 주요 도시의 지사들을 통해 미국 전국의 소식을 소상히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위한 기도제목들을 기독일보를 통해서 많이 얻고 있어서 개인적인 감사도 전합니다. 특별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16년을 지내오며 700호까지 발행해온 발행인과 기자들의 희생과 수고를 치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한인교회

와 단체들의 후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기독일보의 많은 발전을 기도드립니다. 바라기는 계속 교계의 화합과 방향 안내, 우리 차세대들의 사역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금년 2020년이 청교도 미국 이주 400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로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또한 미국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소중한 복음을 전달받았고 미국으로 많은 사랑의 빛

을 진 우리 한인들이 이 중요한 때에 제2의 청교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의미 깊은 해에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먼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던 청교도들의 성경적인 신앙과 열정과 순결한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뽑혀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 은사를 받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도함으로 미국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독일보의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Dietary Supplement  
HEMP PLUS+

2 TIMES A DAY (15 PILLS)  
TOTAL (900 PILLS)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usa.com   hempbiouusa@gmail.com

올가녀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HEMP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제네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증감상과  
환자의 악동,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HEMP플러스로 경험하세요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 교회 및 신교회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 삶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금)  
2부예배 오전 9:45 (수, 금, 일) 오전 9:30  
3부예배 청소년예배 오전 11:30 \*한상사역 각 예배 15분 전  
대학생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모임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세종족을 섬기며, 이민가정들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고대)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킬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후 6:00 (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후 10:3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양청년예배 오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304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에은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열린교회) (스케쉴)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 유아,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청년대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선교와 전경으로 세계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산타모니카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지령 700호 축하

# 이민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력 있는 곳 뉴스'의 전달자



**오명찬 목사**  
웨스트힐 장로교회

할렐루야!

기독교일보(Christianity Daily)의 700호 발간을 함께 기뻐하며 LA 서북쪽 웨스트힐(West Hills)에서 마음 깊이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2004년 1월 23일 창간된 이후 지금까지, 지난 16년 동안 기독교일보는 미주 교계와 이민 사회를 대표하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크리스천 언론 기관으로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미주 교계에 중요한 뉴스들을 신속히 알려주는 '봉화(烽火)'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고, 미국 땅 낮은 환경가운데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올바른 때에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분별력 있는 기사들을 통해 '신호등(信號燈)'으로써의 역할도 잘 감당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일보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들 중의 한 가지는, 이민구 사장님을 비롯하여 기자님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의 흥행이나 관심 위주의 자극적인 기사들보다는 교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식들을 성경적인 관점과 바른 교훈의 렌즈를 통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주의에 물들지 않은) 투명한 소식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점이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사들 중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감사하고, 많은 이민교회 성도님들에게 구독을 권하고 싶은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여타 언론들과 구별되는 기독교일보만의 또 하나의 장점을 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떡'을 세우고자 힘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심지어 교계의 신문이나 뉴스조차도, 교회의 떡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곳 뉴스(Good News)를 찾아서 교회와 세상에 전달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아버지의 은혜 안에 형제 자매 된 이웃 교회들을 향한 무자비한 비방과 정죄 일색의 헤드라인을 뽑고 있는 경향에 반해, 기독교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비난의 송곳으로 찌르거나 정치의 돌을 던지기 전에, 주님의 오래 참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잘못과 실수를 함께 통감하고 함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도록 돕는 기사들을 더 많이 전달하려고 힘쓰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26-27).

마지막으로 기독교일보에게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처럼 미주 교계 전반과 디아스포라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민자들과 이민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력 있는 곳 뉴스'를 전달하는 복된 매체로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는 건강한 언론사로 건승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 2020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결단 3가지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결단 3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1.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시 119:9~11)

모든 기독교인들은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이를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록 선택은 우리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준다.

## 2.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자기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

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4~25)

자기부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2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오직 1명의 주인만 섬길 수 있다.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우리 자신을 섬기게 된다. 나를 섬기게 되면 이기심, 탐욕,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자기부인이 고통과 별에 대한 욕심을 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위하여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 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함을 누리간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6)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자 해야한다.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더욱 가까워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성령이 맺는 열매는 그분과 우리의 친밀함의 척도가 된다.

강혜진 기자



# 기독교인 비율 2% 미만... 불교권 국가 현지 사역자 연장 교육과 훈련의 장

[인터뷰] 글로벌임팩트대학교 김만태 총장

스리랑카 선교사로 사역하다 글로벌임팩트대학교를 설립한 김만태 총장으로 부터 학교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다. 글로벌임팩트대학교는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시아 불교권 국가 현지 사역자 연장교육과 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김만태 총장은 연세대 영문학과 졸업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풀러신학교 객원교수, 미국 베네스다대 교무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미국 글로벌임팩트 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다.

-총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후 풀러신학교에 유학을 와서 선교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수사역과 대학행정 사역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6년간의 학위 연구의 주제는 스리랑카 불교권 선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스리랑카 불교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고 스리랑카인들을 알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연구를 해서 스리랑카 불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분들에게 참고 자료를 나누어야 한다는 비전으로 석사학위 논문은 스리랑카 민간종교와 불교에 대하여, 박사학위논문은 스리랑카 전통관습과 선교의 관계에 대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2011년에 학술서적 전문 출판사로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피터랭 출판사를 통해 박사학위가 책으로 2011년에 출판되어서 세계 70개국 이상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아마존을 통해 “Christian Mission: Worldview and Cultural Approach” (세계관과 문화의 관점에서 본 선교)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여 비교종교 부문 신간서적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연구와 서적을 통해 세계 선교에 참여한다는 보람이 있었지만, 현지 사역자들에게 성경적인, 영적인, 사역적인 충전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더욱 주님께 헌신하고 세계선교에 헌신하도록 연장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임팩트대학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임팩트대학교(Global Impact University)라는 이름은 “복음으로 전 세계에 임팩트를 주자”는 의미로 만들어졌으며, 글로벌임팩트대학교는 아시아 불교권 국가 현지 사역자 연장교육과 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임팩트대학교는 3가지 모토가 있는데 1. Let Him Be Known 2. Become like Him 3. Serve in His Power입니다. 즉,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며 사역하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말씀과 인격,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비추는 것이 글로벌대학교의 사명입니다.



글로벌임팩트대학교 김만태 총장

글로벌임팩트대학교의 교수진은 오랜 경륜의 목회자, 이론과 사역실제를 겸비한 교수님들, 오랜 경험을 가지신 선교사님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대학교는 현지 사역자 교육 및 훈련중심의 대학입니다. 선교를 위해 태어나 선교를 위해 달려가는 대학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전 세계에 임팩트를 주는” 글로벌임팩트대학교를 꼭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도록 간절드립니다.”

-아시아 불교권 국가 선교 현황은 어떻습니까?

“불교권 선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국가는 기독교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입니다. 하지만 불교권은 기독교선교에 대한 저항이 회교권이나 힌두권 보다는 덜하고 문화가 더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불교의 영향이 컸던 국가라서 한국이 불교권 선교에 효과적인 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불교권 국가 사역자 교육과 훈련은 어떻게 이뤄지니까?

“글로벌임팩트대학교는 선교현지에 가서 현지어 통역을 통해 강의와 훈련을 하고, 비디오 촬영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입학 자격은 모두 신학대학 졸업자이어야 하며 5년 이상의 사역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수료증 과정은 12학점 (4과목), 석사학위는 30학점 (10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과목은 전적으로 현장 사역 중심으로서 세부전공으로 성경적 리더십, 교회사역, 글로벌선교, 성경 교육과 설교, 기독교 가정 상담 등 다섯 가지입니다.

현지 사역자 학생들은 소액의 학비를 냅니다. 따라서, 글로벌임팩트대학교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과 자발적 봉사로 움직입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말씀과 사역 역량, 성경적 인격과 리더십으로 구비하여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세계선교의 역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임팩트대학교 입학문의는 전화 (213) 531-7215, (213) 833-8208 이 메일 Info.lagi@gmail.com 웹사이트 www.gimpactuniversity.org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인규 기자

## “미주 한인교회, 탈북민에 선한 사마리아인 돼야”



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 엔키아 탈북자 선교회 탈북민 12가정에 지원금 전달

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회장 김순희)와 엔키아 탈북자 선교회(대표 김영구 목사)는 지난 21일, 용수산 식당에서 2019년 유난히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탈북민들을 위로하는 탈북민 가정 초청 송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기형 목사(하늘문교회)는 한국에서 벌어진 탈북민 모자 아사 사고와 탈북민 청년 두 명의 강제 복송을 이야기하며 “강

도를 피해 온 탈북민들이 또다시 강도를 만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미주 한인 성도들이 그들의 진정한 친구들이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전했다. 엔키아 탈북민 선교회의 김영구 목사는 탈북민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엔키아 선교회( NKIA MISSION) 310/404-6219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박부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정동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경 선교 세움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 예배 오전 8:00 장주영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안 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함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조준민 담임목사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 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묵 담임목사  
오전 11:00(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송재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아침찬양 오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ver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명창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광여예배 오전 10:00 박득근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MP채플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유년부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 (818)363-5887 Tel: (323) 837-9909

**주안에교회**  
In Christ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서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질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주일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본당

**김우준**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O.C., 엘바인 지역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남가주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설가죽 예배 매월 4째 주 주일 오후 5:30분  
대화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영으로 열방을 섬기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가는 복음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로 세움 받아 함께 열매가 되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기독교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ta@gmail.com

美 교계 지도자들이 전하는 신년 메시지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회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조엘 오스틴 목사 등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1일 미국 교계 지도자들의 새해 메시지를 소개했다.

1.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회(BGEA) 프랭클린 그레함 회장

프랭클린 그레함(Franklin Graham) 목사는 “많은 사람들은 새해 첫날 여러 가지 결심을 한다. 어떤 이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고, 어떤 이들은 더 건강해지고자 한다. 또 다른 이들은 다이어트를 통해 살을 빼거나 더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같은 결심은 보통 오래가지 않는다.

새로운 해에 들어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어딘지 돌아보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할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모든 삶 속에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길 원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기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 말하기는 적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당신의 2020년은 다른 해가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강혜진 기자

美 UMC 내 ‘동성애 반대 진영’ 별도 분파로 독립한다

진보 진영은 ‘동성결혼 및 동성애 금지’ 조항 삭제 계획



지난 2012년 5월 3일 미국 플로리다 탬파주에서 열린 2012년 교단 총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참가자들이 교단에 더 넓은 포용성을 요구하며 침묵 기도를 하고 있다. ©미 연합감리교 제공

미국연합감리교(The 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UMC) 내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자의 성직 허용 문제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보수 성향의 교회들이 별개 분파로 독립할 예정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회들은 교리에서 동성결혼 및 동성애 금지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감독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좁혀질 수 없는 차이점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각각의 신학적 이해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계획안에 따라 새로운 분파를 꾸릴 보수 성향의 교회들은 교회 건

2. 힐송교회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

힐송교회(Hillsong Church) 브라이언 휴스턴(Brian Houston) 목사는 “2020년은 돌파의 한 해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최고의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2020년을 시작하라. 또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대신 기도로 돌파해내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3. 레이크우드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

텍사스 레이크우드교회(Lakewood Church) 조엘 오스틴(Joel Osteen) 목사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고, 번창하고, 구속됐고, 용서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창 의적이며, 훈련돼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안전하고, 준비되어 있고, 능력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용납됐고, 수용됐고, 원수를 갚지 않으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래된 모든 것들을 보내고, 2020년 새롭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길 원한다”고 전했다.

4. 베스 무어 목사

성경교사인 베스 무어(Beth Moore) 목사는 “2020년에는 당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더욱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2020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보여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물 등 교단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향후 4년 동안 2,500만 달러(약 290억 원)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UMC 내의 다양한 관점과 지역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각자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도 수 1,300만 명으로 미국에서 2번째 큰 교단인 UMC는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문제를 놓고 수 년 동안 논쟁을 벌여왔으며, 작년 2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기존 동성애 반대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그러나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성직 허용을 요구하는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고, 감리교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웨슬리안언약협회(WCA) 등은 분리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WCA 회장이자 분리 계획안을 작성한 케이스 보에트 목사는 “분파 후에도 양측 모두 UMC라는 교단 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나 독립하는 분파나 남는 분파 모두 이전과 다를 것”이라며 “한쪽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5월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UMC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한편, 텍사스에 소재한 대형교회는 동성애 문제로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UMC 소속 그레이스 펠로우십 교회의 성도 2,800명은 지난 12월 18일 투표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설립자인 짐 레게트(Jim Leggett)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교단 내에서 진행 중인 역기능적 싸움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로 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완수하는데 온전히 전력투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 루이스 라파엘 사코 이라크 대주교 “긴장 고조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종려나무잎을 흔들고 있는 이라크 기독교인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영상화면 캡처

바그다드 갈데아 가톨릭교회의 루이스 라파엘 사코 총대주교는 이라크의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에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Qassem Soleimani)를 제거한 후, 전쟁에 대한 소문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사코 총대주교는 이라크와 중동의 상황이 화산폭발 직전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이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다며 긴장된 상황이 고조되지 않도록 전 세계인들의 기도를 요청했다. 사코 총대주교는 “이라크 인들은 여전히 지난 주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충격 속에 있다. 이들은 이라크가 시민들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권국에서 전쟁터로 변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이 냉소적이고 긴장된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모

여 이라크를 예상치 못한 결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문명화된 대화를 갖는 것이 지혜롭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라크에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시길 간청한다”고 전했다. 글로벌 캐털리스트 미니스트리스의 한 사역자는 미션네트워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이라크와 중동의 기독교인들은 긴장이 고조되면서 끔찍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기독교를 서양, 특히 미국의 영향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이 미국에 선전 포고를 원할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는 등 악한 행동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 의회는 5일 만장일치로 미군철수안을 통과시켰다.

강해진 기자

## 中 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 징역 9년 선고 받아



왕이 목사가 '6월 4일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쓰여진 종이를 들고 서 있다. 이날은 '텐안먼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 국제 인권단체들 “끔찍하고 부당”

중국 이른비언약교회 왕이(Wang Yi) 목사가 국가전복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30일(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30일 1심에서 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에 징역 9년과 함께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 재산 5만 위안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가전복선동죄 외에 불법경영죄도 적용했다고 한다. 중국 공안은 2018년 12월 9일 저녁 집회 때 교회를 급습해 왕이 목사와 지앙 롱 사모를 비롯해 100여 명의 성도들을 체포했다. 교회를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중국 당국은 정부에 등록된 삼자교회에서의 예배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 목사는 구금 당하기 직전 교회 페이스북에 “공산당은 당분간 변창할 수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당이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며 정부의 기독교 탄압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당국은 사무실, 부속 유치원, 신학교 바이블칼리지 등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성도들의 집을 조사했다. 또 성도들에게 예배를 다시 드리지 않겠다는 서명을 강요했다. 또 성도들의 절반 이상은 공안의 감시를 받게 됐다. 수 개월에 걸쳐 지앙 사모를 비롯한 성도들은 대부분 석방됐으나, 중국 법원은 불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교회 지도자 쉰 데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왕이 목사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국제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총재는 “왕이 목사는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위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중국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토마스 총재는 “우리는 중국 당국이 왕이 목사에 대한 혐의를 중단시키고, 그를 비롯해 구금되어 있는 이른비언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석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 중국 관계자인 패트릭 푼(Patrick Poon) 역시 “왕이 목사는 단순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중국에서 평화적인 인권 운동을 벌여왔다. 징역 9년의 선고는 끔찍하며 부당하다. 왕이 목사는 양심수이며, 조건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 밥 푸(Bob Fu) 대표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왕이 목사의 국내외적 영향력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이끌어 온 개혁주의 복음운동의 영향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6년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종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수십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급습해 중국 최대 지하교회인 베이징 시온교회를 급습해 폐쇄시킨 일도 있다.

강해진 기자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재능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셀로일: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아름이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화-토)  
전망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애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63  
T. (714)749-7770 www.saemmoor.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아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cocpg.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 CA 92886  
T.(714)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기독일보 창간 700호를 축하합니다

# 미국에서 영어로, 북한인권 영화제작 추진

## (1탄)그 여자·리 춘 화

The Woman Of Lee Chun Hwa

2002년 먹을 것이 부족한 리춘화(23)는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러 나왔다가 인신 매매 되어 중국 강촌의 70여명의 노총각들이 계를 부어 마을 처녀로 팔려간다. 하루에 2명씩 순번제로 남자를 상대 해야만 하는 춘화는 가장 윌패인 진 핑을 설득, 그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지혜내어 마침내 진 핑의 아내가 된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아주고 남편의 마음을 안정시킨 어느 날, 밭에서 고추를 말리던 춘화는 지나가던 조선족 상인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여 한국까지 오는데...



북한여성들의 중국에서의 인신매매와 인권유린 보고

## (2탄)기도하는 억류자들

The Praying Detainees

캐나다 큰 빛 교회 임 현 수 목사, 시애틀에 케네스 배 선교사, 로버트 박, 그리고 워임 베어 까지, 북한에 억류되었던 이들과 현재까지 억류된 이들의 픽션 다큐멘터리



임현수 목사



케네스 배 선교사



오토 워임 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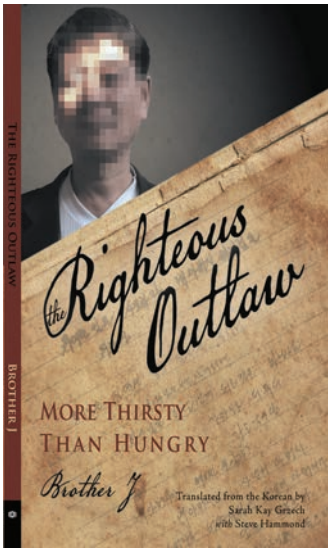


로버트 박 선교사

## (3탄)북한지하성도들의 순교증언

Thirst greater than hunger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의 한 지방간부 출신의 지하성도의 자전적 스토리와 비밀성도들의 증언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었고,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영화는 이 귀한 메시지의 강력한 선교도구입니다.



박상원목사\_편저자



윤학렬감독\_ '1919유관순' 등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용희교수(애스더대표), 송정명목사(북송반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쥬빌리미주대표), 신창민박사(통일은 대박이다),  
유관지목사(통일포럼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옆의 책은 아래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위 세가지 스토리를 한국이 아닌, 미국내 영어권 한인 2세들의 완벽한 영어로 미국 주류사회와 교회지도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10월말(대선전) 개봉 목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영화를 위한 제작비 100만 불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교회 단체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기부한 모든 이들의 이름을 공동제작자(총감독 윤학렬 감독)로 기록됩니다.  
영상의 세대에 미국에서 영어로 먼저 제작되는 감동의 북한인권영화를 통하여 디아스포라들을 연합시키고, 북한동족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게 될 이번 영화 제작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총 제작비가 채워지는대로 4월부터 각 지역별로 오디션을 통해 배우를 선발하여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하여 하루에 한번 기도, 한달 한번 헌금, 일년에 네 번 연합하여 기도하면 우리도 United KOREA !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념  
감사예배와 축하공연 및 디너행사

“대민국과 미정치인들과의 대화장의 장으로  
모든 한인 이민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초대의 글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시작된 한인 이민역사가 올해로 117주년을 맞이합니다.  
가주와 연방의회에서 마주한인의 날로 제정된 1월13일은 우리 한인이민자들의 축제의 날입니다.  
더불어 101주년을 맞는 미주한인의 긍지, 고 김영옥 대령 기념행사와 이민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평창동계올림픽성공 감사까지 함께 할 이번 행사는 종교계와 모든 단체장은 물론  
모든 한인들이 꼭 함께 하실 자리입니다. 초대합니다. 꼭 오십시오.  
한국에서 초청한 “현대음악과 민족민속의 만남”의 30여명의 출연 진들과  
현지 음악인들이 출연하며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은 물론 타민족 지도자들과까지  
모두 초청된 이 자리에 모든 한인들의 참석은 그야말로 공공외교와 민간외교,  
두가지 목적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것이며  
1.5세대, 2세대, 한인을 포함한 방글라데시, 월남, 중국, 히스패닉등  
다양한 이민자들의 대화합의 자리는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에게도 큰 응집력으로 전해 질 것입니다.

“초대권은 당일 현장에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시: 2020년 1월 12일(주일) 오후 3시  
장소: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 1부 감사예배: 설교/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 2부 축하공연: ‘한국의 명인 명무전’ 한국전통음악과 클래식의 만남  
지상 최대 한국의 열과 눈물, 사랑 그리고 천상의 화모니와 감동!  
특별출연 젊은 흑인 ‘Mossy’, 유대인 가수 Corry의 공연
- 3부 디너행사: MILLENNIUM BILTMORE HOTEL(Gold Room)  
506 South Grand Ave, Los Angeles, CA 90071(Dinner-6:30pm)  
(디너 행사 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가능함)

주최



미주한인재단 LA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OS ANGELES

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 조직표

**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 회장:이병만 대회장:김동수 준비위원장:이상명 실행위원장:김경일 부준비위원장:김영구 대외위원장:생신  
부대회장:임경해, 윤우경, 정정숙 번역위원장:다니엘김 회계위원장:박희준, 최대용(운영위원) **명예대회장(Honorary Chairman)** 최문환(미주성시화이사장),  
김영수(OC교협후원회이사장), 정동익(전미주한인재단LA이사장), 김향로(전남가주교협이사장) 조순환(일천만아산가족위원회이사장)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이종용(코너스톤교회담임), 신승훈(주님의영광교회담임), 한기홍(OC은혜한인교회담임), 강준민(새생명비전교회담임) 김한요(베델한인교회담임), 노창수(사랑의교회담임),  
민종기(충현교회담임), 박성근(새빛교회담임), 심홍섭(SD갈보리교회담임), 진유철(나성순복음교회담임), 최홍주(에브리데이교회담임)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장태한(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 최광철(케이팩대표), 이내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의원, LA재외 선거관리위원), 락도원(미주도산기념사업회 수석기획부회장),  
그레이스송(3.1여성동지회회장), 유화진(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남가주지부 회장), 최정택(한우회회장), 민병용(전미주한인재단LA회장), 정석란(코인회회장), 조길원(코인전회장), 이명호(사무총장미주한인재단LA),  
최만규(육군장교협회장) 박희준(미주한인재단LA차세대위원장) 정종오(세계선교대권도협회장), 주수경(OC축제재단부회장/원탁), 남상국(연목회회장), 김순희(대한민국역사지키기운동본부),  
이영희(원탁회의 부위원장) 오은영(19기평통상임고문), 한보화(남가주리버사이드한국학교교장), 민컬(OC기독교전도연합회회장), 박영남(광복회미국사남부지회회장), 클라라김신(뮤지컬도산/무대예술인그룹시선대표),  
김데니엘(통역대교수) **미정치위원회(U.S. Political Committee)** Kathryn Barger (LA-Co Supervisor/Advice), Fred M Whitaker (Law Firm presiden/Advice), Judy Chu (연방의원), 최석호 (가주하원의원), 미셜스틸박  
(OC수퍼바버), 영킴 (연방의원후보), 데이비트 (LA시의원), 잔리 (LA시의원) **타민족위원회(Ethnic Committee)** Phat Bui (OC시의원/월남회총회장/Advice/Special Committee), Ali Sajjad Taj (Artesia Mayer/  
Advice/Special Committee), Rafael Porras, Velasco (히스패닉/Special Committee), Jimmy Wu(LA카운티-외 다민족/Special Committee), 에스더고 (보좌관-Special Committee), 박동우(사련 퀴크 실바 보좌관)  
**대외협력위원회(Public Relations Committee)** 권영신(전대한민국민회이사장), 그레이스송(3.1여성동지회회장) 김성일(빅토빌벨리한인교회회장) 김태열(전교협총무이사), 박영남(서부광복회회장) 최정택(OC  
한우회회장), 강태광(목사), 최순자(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부회장), Esther Yoon(사모(강원재단) Paul Yoon(파피출사/싱글즈) 최영해(목사), 전민규(Michael Jones-Terrapen Fund-crowdfunding CEO), 안신기(교협총무),  
백경희(원탁/강원재단), 이경호(교협총무), Joshua Yoon(아시아발달장애인센터 이사장), 최만규(육군동지회회장), 권명주(글로벌한인여성상공인협회의 총회장), 서영민(싱글즈위원) 크리스티나황(차세대),  
이연주(마가렛리선교회대표), 마리아Shin(싱글즈위원) 유화진(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남가주지부-회장), 임경해(미주한인재단 LA부회장), 황재경(음악박사), Kathy김소영(싱글즈위원) 김향로(교협이사장), 채희정(프린트  
&인크회사대표), 윤태환(목사/주진위원), 은신그린(교협/주진위원) 코인 전회장(연로사 부사장), 박응태 목사, 안신기(교협총무), Jeremy j park기독(연로), 정정숙(미주한인재단LA부회장) 민병용(전미주한인재단LA회장)  
김진모(전OC평통회장), 박영미(중가주-산타바바라 한인회회장) 주수경(OC축제재단부회장), 박동우(전미대통령장애인특별위원장), 안우진 목사, 오관진 목사, 정종오(세계선교대권도협회 회장), 윤미라(TIC선교회총무),  
케니킴(LA County Sheriff s 한미경찰위원회 후원회회장), 임태광(자유민주통일동우회회장), 박형만(만북복지재단대표) 마유진(전 LA민주평통협의회수석부회장), 최학량(이승만대통령 기념사업회회장)  
이정희(글로벌재단회장), 이아이라(글로벌여성상공인협부회장) 이재권(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현(미주동포연맹회장), 김순희(대한민국역사지키기운동본부회장), 진재곤(남가주영관장교연합회회장),  
박철용(일사회회장), 줄리김(충청향우회회장) 박요한(충청향우회차기회장), 권용섭(속도회가/미주미술협회장), 최석균(넥스트젠모기지대표), 정정건 장로, 송병주(선한정지교회담임), 최광철(KAPCA대표), 최정학 장로  
오은영(19기평통상임고문) 생신(목사회총회장), 이상명(미주장신총장) 이광술(서북부회), 김영규(NKIA탈북자선교회대표), 김관진(남가주목사회) 김복임(군우회회장), 김희창(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회장)  
윤호신(대한민국민회이사장) 배국화(전대한민국민회이사장) 김성웅(전미주한인재단전국회장), 최순재(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부총회장) 박학수(인랜드한인회장), 윤우경(한인크리스천여성방송인협회장),  
김경일(충신대학교남가주총동문회장) **해외, 타지역 협력위원회(Overseas Cooperation Committee)** 김활란(전 미주한인재단회장), 김규희(동남부지역대학-수학교수) 김동원(강원도기업대표),  
김상기(한국농사사랑회이사장) 김세진(경제일간지파이낸셜뉴스일본법인장), 김영남(동남부-평창홍보대표), 김왕기(평창동계올림픽미주후원회수석부회장) 문상귀(뉴멕시코한인회장-평창), 박경규(외식업협회 회장),  
유영렬(시민연합방송 대표) 오인성(속초중소기업전무/강원재단), 이선희(강원주류협회장), 이수기(한국평창위원), 이홍식(전타운연영회회장), 홍성규(새방송인/문화원사무총장), 최돈진(강원재경협전회장/평창),  
최은주(새방송인), 조성원 목사David Hyun(동남부세리더) , Eugene Lee (뉴에틀렌타필하모닉지휘자), SeungK Kang(SF샌프란시스코 30대 한인회장)